유두석 군수,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동분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개호 장관 면담 내년 본예산 반영 요청
나노산단에 3500억 투입 연구센터·500병상 규모 병원 등 추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국회를 찾아가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실현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실행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지역구 현역의원이기도 한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면담했다.

유 군수는 면담에서 심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 개정, 전남도가 용지매입 등을 위해 요청한 246억원 가운데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6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전남대학교병원과 함께 2007년부터 심혈관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입해 첨단연구개발특구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 33만㎡에 연구센터와 500병상 규모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자고 설득해왔다.

10여년의 노력 끝에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이자 광주·전남 상생 과제에 선정됐다.

하지만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장기계류하면서 현재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은 장성의 미래를 바꿀 역점사업으로 의료인프라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와 장성군의회는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하는 등 국립심혈관센터 조기 설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유두석(오른쪽에서 두번째) 장성군수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명수(왼쪽에서 두번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면담하고 심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비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미래 천년 염원 '천년나무' 기념식수

담양군은 지난 23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광장에서 담양지명 천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번영을 염원하는 뜻을 모아 '천년나무' 기념 식수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함께 천년나무를 심었다.

새로운 미래 천년과 담양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를 담아 습지에서 잘 자라고 긴 수령을 지닌 낙우송을 천년나무 품종으로 정했다.

담양군은 풍요로운 미래 천년을 기원하는 표지석도 세울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의 지명 천년을 맞이해 과거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 담양의 발전을 염원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담양군 '자치분권 추진 협의회' 출범

지역활동가 등 18명 구성…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담양군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담양군은 군의원,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 각계각층 1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추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최용만 담양군이장연합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정책과제개발 ▲자치분권 관련 사업 사업평가 및 홍보 ▲전국 분권단체와 유기적 협력 등을 수행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오재일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자치분권 홍보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군의회와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담양군 자치분권 추진 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진 뒤 회의를 열고 있다. 〈담양군 제공〉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등 6곳 '숲가꾸기 행사' 개최

화순군은 최근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 동면 오도미마을 경관숲, 동구리 호수공원, 감도리 백신단지 등 6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육림의 날을 기념해 공무원과 마을주민 등 140여명이 함께 해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상지를 중점으로 행사를 진행해 보다 많은 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료주기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고형복비를 140kg 투입해 작업을 마쳤다.

화순군 관계자는 "오늘 가꾼 한 그루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답고 울창한 자연의 숲을 이뤄 우리 산림과 미래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며 "화순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상지가 이번에 가꾼 조경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군, 제설차량 7대 운영 등 폭설대책 마련

장성군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제설장비를 늘리고 도로 관리구간을 확대하는 등 제설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제설 핵심장비인 15 t 트럭을 추가로 확보해 총 7대를 운영하고, 도로 유형에 맞춘 제설용 삽날의 수량을 늘려 제설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상특보와 적설량에 따라 제설작업이 실시되는 집중 관리 구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갯길이나 응달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제설 수요와 도로 통행량 등을 고려해 평지 도로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평소 차량 진출입이 많은 진원면 나노산단 인근 도로와 남면 지역 중심도로 등 제설 수요가 많은 구역이 집중 관리된다.

집중 관리도로가 아닌 마을 이면도로나 안길은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한다.

장성군은 그동안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농기계 부착용 제설기를 보급하고 자원봉사자별로 책임구역을 설정해 제설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자원봉사자들과는 SNS를 활용해 제설 대응 상황실과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 간 기상정보와 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작업이 이뤄져 왔다.

아울러 기상상황에 따라 10~14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성과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일선에서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이 성과를 내고 마무리 됐다.

화순군은 주면 백암2지구를 끝으로 올해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지난 3월 동복면 천변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동복지 상담실을 통해 군은 새롭게 선보이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편된 복지제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 67건을 비롯해 모두 127건의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고 각종 감면서비스 등 복지 관련 상담 21건을 현장에서 접수하는 등 모두 148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내년에도 군민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중점을 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동복지상담실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방문 자체를 꺼리는 주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같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담양군, 전국 사진공모전 김정훈씨 '죽녹원…' 대상

담양군이 전국의 사진애호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담양관광 사진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심사결과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 입선 31점 등 총 39점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김정훈 씨의 '죽녹원을 걸어요'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김용대 씨의 '충용문에서 본 금성산성의 일몰', 김재현 씨의 '가을로', 허칠구 씨의 '명옥헌의 겨울'이 각각 선정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